고흥 우주축제 올해도 '예산낭비' 논란

노래자랑 등 부대행사 예산 절반 이상 써

항공 인프라 활용 상설 전시장 등 설치를

오는 28일 개막되는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올해도 예산 낭비성 이벤트 축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국내 최초의 나로도 우주발사대 설치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나 부대 행사에 예산의 절반 이상이 투입되고 노래자랑 등 이벤트 행사에 치우친 일회용 축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흥군은 이같은 지적을 피하기 위해 4회째를 맞은 올해부터 부대행사를 줄이고 어린이를 위한 우주체험전위주 프로그램으로 치르겠다며 명칭도 '우주항공 체험전'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고흥군은 특별 전시행사로 우주체험과 무관한 공룡화석이나 로봇공룡, 천연기념물, 해양광물 등을 감상하는 원시 체험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더욱이 로봇공룡과 소장품 등의 임차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주 전시관 설치비 1억7천만원보다 많은 2억원으로 또 다시 이벤트 성 행사에 전체 예산의 40%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 체험시설은 열흘 동안의 행사가 끝나면 모두 철거될 예정이어서 매년 반복되는 설치와 철거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경남 사천군이 주최하는 '항공우주엑스포'의 경우 상설 전시장을 갖추고 항공 인프라를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평가받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이미 완공된 나로도 우주체험 교육홍보관을 활용할 수 있고 2010년에는 국립청소년 스페이스캠프도 완공될 예정이어서 상설 전시장 설치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많다"면서 "원시 체험관 설치는 장기적 안목 외에도 원시와 미래첨단이 만나는 국내 유일의 체험전인 만큼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07 고흥 우주항공 체험전'은 '고흥에서 원시와 신비한 우주를 체험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팔영체육관 일원에서 열린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더위엔 죽부인" 담양읍 양강리에서 '죽부인'(竹夫人) 만들기가 한창이다. 죽부인은 대나무 표면에서 느끼는 차가운 감촉 등을 이용해 무더위를 덜 수 있고 장식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위직량기자 jrwi@

초전도체 에너지 장치 광양에 생산공장 설립

전남도 6백억 투자협약

광양에 초전도체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공장이 들어선다.

전남도는 13일 광양시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성웅 광양시장, 박홍옥 (주)K&J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주)K&J는 광양시 중마 자유무역지역 내 부지 4만 1545㎡에 2008년까지 총 6천만달러를 투자해 초전도체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주)K&J는 초전도체 에너지 저장장치의 상용화를 위해 지난 5월 한·일 합작으로 설립됐다.

내년 하반기에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540억원대의 매출과 800명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중마 자유무역지역을 초전도체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관급공사 대가 공무원에도 뇌물

순천지청, GS사건 수사 확대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GS칼텍스 직원에게 5억 원을 건넨 G업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이 업체 대표 김모(43·여)씨가 각종 관급 공사 대가로 공무원과 감리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7월 곡성교육청과 곡성중학교가 발주한 3천700만원 짜리 건설폐기물처리 공사를 하도급 받은 뒤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5천900만 원으로 상향되자 사례비 명목 등으로 원도급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900만 원을 건넸다.

김씨는 또 2004년 9월 고흥군청이 발주한 1억 9천100만 원 짜리 나로도 상수도 폐기물처리 공사를 수주한 뒤 중간기성금 수령에 대한 사례비 명목 등으로 공사 감독관인 고흥군청 공무원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건넸다.

검찰은 김씨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주요 관공서와 언론계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포착, 이들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업체는 애초 GS칼텍스 매립 공사와 관련해 33억 원 어치의 골재와 토사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실제 납품액은 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순천 시민 35% "시내버스에 불만"

운전기사 '불친절'도 32%에 달해

시민 368명 만족도 조사

순천 시민들의 시내버스에 대한 만족도가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지역 시민단체인 순천 KYC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시내버스 이용객 36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스럽다'(34.5%)는 의견이 '만족한다'(15.5%)는 의견보다 두배 이상 많았고 '보통이다'는 대답은 50%로 나타났다.

또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도 불만족 의견(67.5%)이 만족(6.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운전기사의 친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친절하다'가 전체 응답자의 32.2%에 달했으며 '친절하다'는 19.8%에 그쳤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요금인하(27%) ▲운행시간 준수(23%) ▲운전기사 친절도 향상(16%) ▲운행횟수 늘리기(14%) ▲과속·난폭운전 근절(10%) 순으로 조사됐다.

순천 KYC 관계자는 "순천시민들이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체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순천시와 버스업체들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무안 백련차 지리적표시 등록

무안 백련차가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다.

연마을 영농조합법인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심의와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11일 지리적 표시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무안 백련차는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품질 관리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무안군은 지난 2일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친 무안 양파와 백련차를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신안 증도에 첫 소금박물관

태평염전 석재창고 개조 개관

국내 최초의 소금박물관이 신안 증도에 문을 열었다. 지상 1층 건물로 400㎡ 규모의 전시공간을 갖춘 이 박물관〈사진〉은 지난 달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 태평염전 내 석재창고(1945년 건립)를 개조해 개관했다.

박물관 입구의 '소금의 개념' 코너에는 '바다에서 생명이 시작됐고 바닷물과 같은 농도인 모태의 양수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있을 만큼 소금은 중요하다'는 내용이 요약돼 있다.

'소금의 역사' 코너는 소금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소금과 문화' 코너는 이스라엘, 멕시코, 동남아시아, 이집트, 중국 등지의 소금문화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새얼굴

"농어업·관광산업 육성 적극 노력"

김 재 휴 보성 부군수

"민자유치 등을 통해 보성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신임 김재휴(56) 보성군 부군수는 "농어업 및 관광산업의 육성, 투자유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양 출신인 김 부군수는 조선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남도청 서울사무소장, 전남도의회 입법정책 전문위원, 투자유치팀장, 세무회계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신민정(52)씨와 1남 2녀. 취미는 등산.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인명·재산보호 체계적 시스템 구축"

나 윤 환 보성소방서장

"주민과 함께하는 으뜸 소방행정을 창출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나윤환(53) 보성소방서장은 "보다 효율적인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체계화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출신인 나 서장은 지난 1980년 공채 2기로 소방 공무원에 입문, 목포·여수소방서 방호과장, 전남소방본부 감찰 조종관, 구급담당, 방호구조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한효숙(48)씨와 2남이 있다. 취미는 낚시와 테니스. /보성=안구일기자 giahn@